

 인천광역시	보도자료		 재외동포청 인천설치확정!
	배포일자 2023년 5월 24일(수) 총 2매		
담당부서 노동정책과	담당자 • 노사협력팀장 송종현 ☎ 440-4407 • 담당자 김준희 ☎ 440-4412		
사진(이미지)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보도시점	(10시)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인천시, 노사 상생 발전위해 노사민정 공동선언
- 24일, 올해 첫 노사민정협의회 개최 -
- 지역경제 활성화 및 노사 상생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공동선언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5월 24일 시청 소통회의실에서 2023년 제1차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.

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한국노총인천지역본부 의장, 인천경영자총협회 회장,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, 시민단체 대표 등 인천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, 노사 상생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.

위원들은 인천시로부터 ▲2023년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▲노동 존중 생태계 기반 마련 사업계획을 보고 받고, 각 안건에 대한 노·사·민·정의 상호 역할과 세부 추진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.

이어서, 인천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노사상생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

노·사·민·정 대타협 공동선언도 이어졌다.

공동선언에서는 ▶[노]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및 기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 ▶[사] 일터 혁신과 상생의 정신으로 기업 환경 개선에 최선 ▶[민] 노사정이 시행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 ▶[정] 노사상생 거버넌스 구축과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과 정책 마련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.

협의회 위원장인 유정복 시장은 “세계 초일류 글로벌 인천 조성을 통해 다국적 기업과 국제기구 유치로 기획의 땅 인천을 만드는데 노사민정 각 주체 간의 긴밀한 소통과 파트너십을 통해 신뢰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”면서, “인천의 모든 노동자 여러분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인천과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 당부드린다”고 말했다.

※ 관련 사진은 행사(10시)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'인천시 인터넷방송'(http://tv.incheon.go.kr/) '포토인천'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